



은행 (Positive)

4월 연체율: 내려올랑 말랑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국내은행의 4월 말 연체율은 0.61%(+4bp YoY)로 상승했습니다. 올들어 연체율의 YoY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으나 가계는 하락까지 이어진 반면 중소기업은 상승폭의 횡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중 연체율이 YoY 개선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합니다. 전년보다 연체 정리에 소극적인 상황임을 고려했습니다. 변수는 금리입니다.

국내은행 4월 말 연체율 0.61%(+4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2026년 4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61%(+4bp YoY)로 상승 (그림 1~6)
- 차주별 연체율은 법인 중소기업이 0.98%(+9bp YoY), 자영업자가 0.78%(+4bp YoY)로 상승.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의 상승폭은 10bp 미만으로 축소되었지만 높은 한 자릿수를 지속.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22%(+9bp YoY)로 전년 동월보다 상승했으나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연중의 연체채권 증가세는 일단 중단됨
- 가계 연체율은 0.42%(-1bp YoY)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의 하락을 지속. 신용 등 일반대출(0.83%)이 3bp YoY 하락했고, 주택대출(0.30%)은 전년 동월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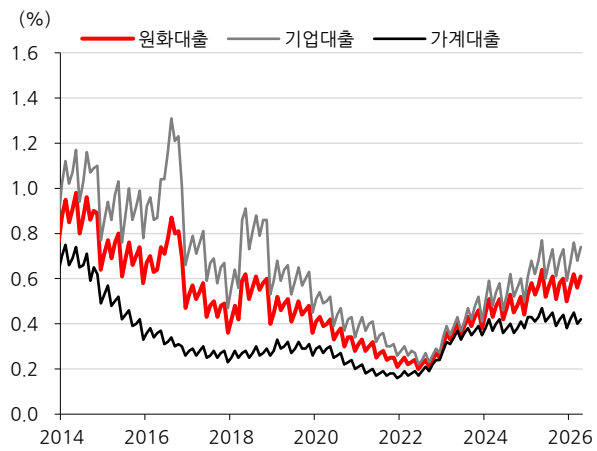
신규 연체는 늘고 연체채권 정리는 줄어들고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4월 말 15.0조원(+10% YoY)으로 추산 (그림7)
- 4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는 2.9조원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 (그림9).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규모는 1.6조원(-8% YoY)으로, 연체채권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오히려 감소하면서 정리율은 최근 4개년의 4월 수치 중 최저치를 나타냄 (그림10)
- 기업 (추정): 4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14% YoY로 추산. 법인 중소기업의 연체잔액은 2023년부터 20~72%의 YoY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026년 들어 10%대로 완화. 다만 증가율의 추가적인 하락은 관찰되지 않음. 자영업자 연체 증가율은 전월 0%대에서 6%로 재차 상승. 한편 건당 영향이 크고 비중이 작은 대기업 연체잔액은 전월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YoY 증가율은 하락(3월 119% → 4월 84%)함 (그림12)
- 가계 (추정): 4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0% YoY로 추산. 전월 말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YoY)한 것이 4월에도 이어짐. 신용 연체잔액이 3% YoY 감소하고, 주택담보 연체잔액이 3% YoY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그림12)

내려올 듯 말 듯 버티는 연체율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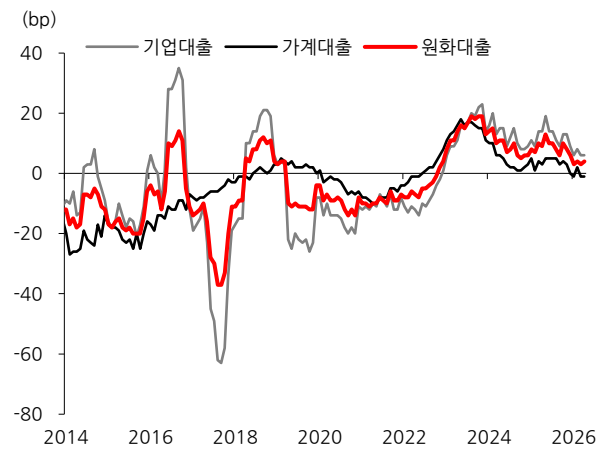
- 은행업종의 연체율 및 연체채권 잔액은 YoY 지표를 기준으로 상승폭 및 증가율이 둔화되어 옴(그림2 및 그림12). 실제로 연체율의 상승폭은 2025년 평균 9bp 수준에서 2026년 들어 3~4bp로 축소되었고, 연체채권의 증가율도 2025년 20% 내외에서 2026년 들어 10% 내외로 하락
- 다만 이러한 둔화세가 가계 차주에서는 연체율 하락과 연체채권 감소까지 이어졌지만, 중소기업(법인+자영업자) 차주에서는 정체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이전에 강조했듯이 특히 법인 중소기업은 연체채권 내 비중이 40%에 준하고 사이클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더욱 중요
- 그럼에도 2026년 중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개선(YoY)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함. 기업 차주의 지표 횡보에도 불구하고, 연체 정리 또한 전년보다 소극적인 상황임을 고려하였음. 한편 4Q25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시장금리는 연체율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가 될 전망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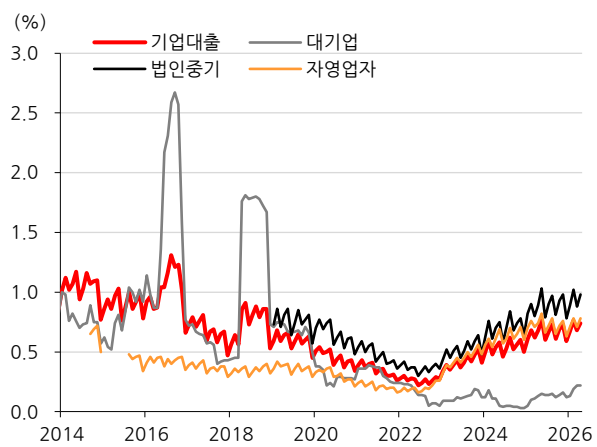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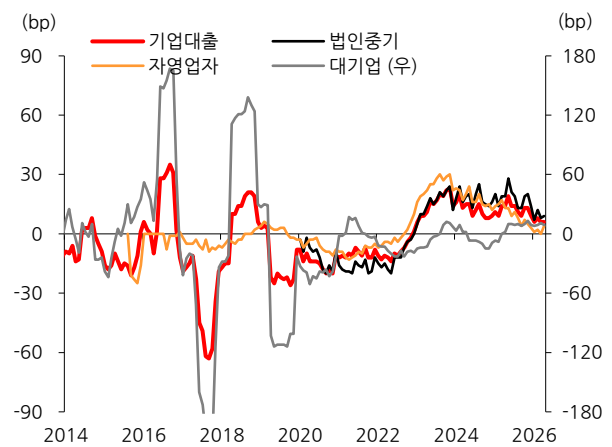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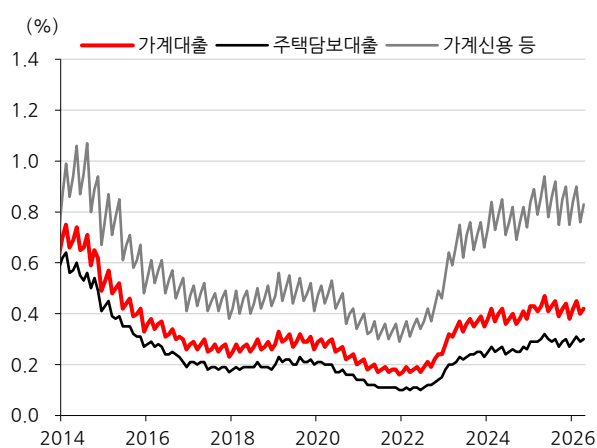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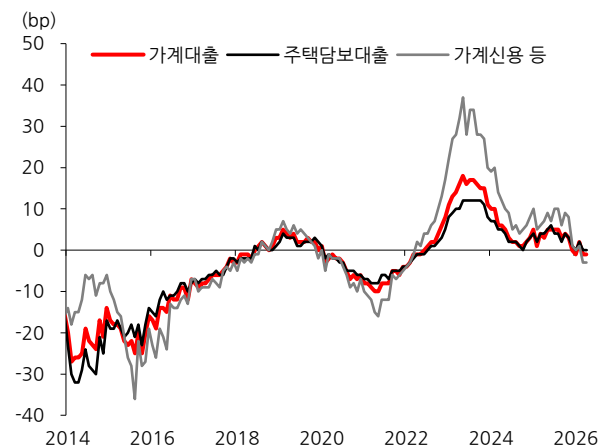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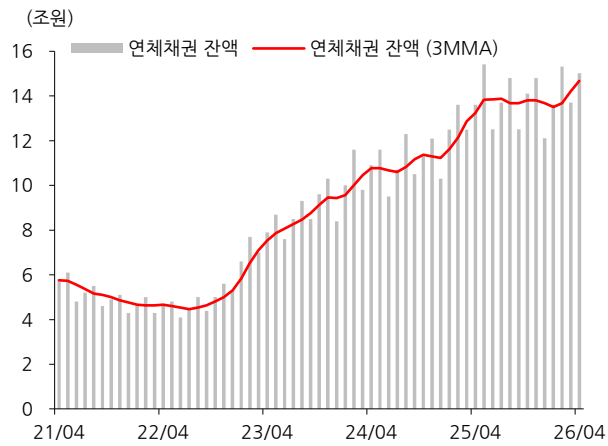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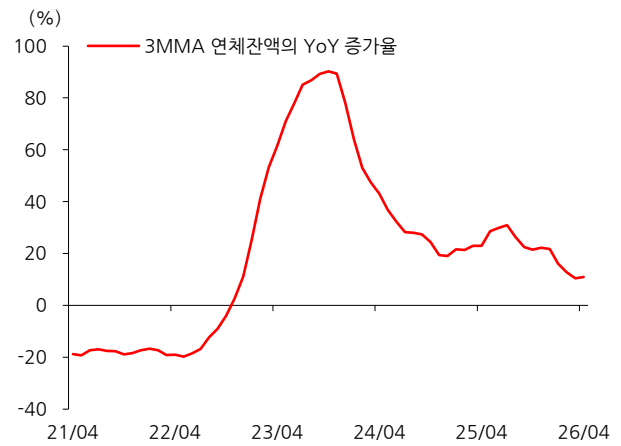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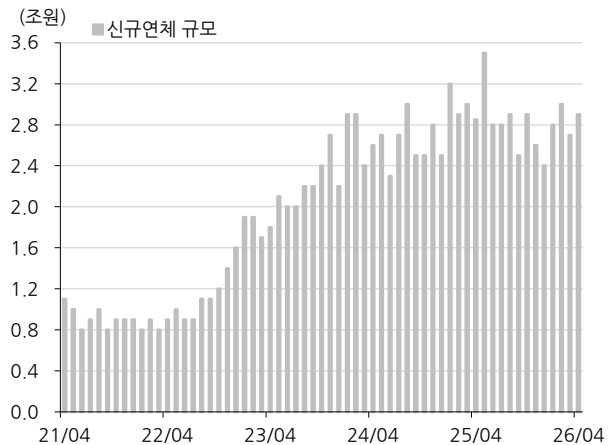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3개월 이동평균 연체채권 잔액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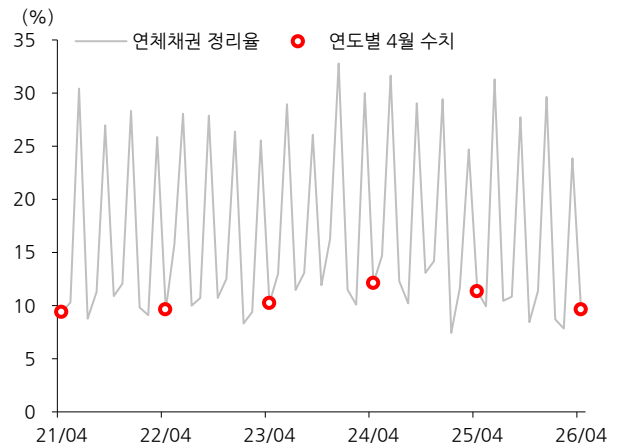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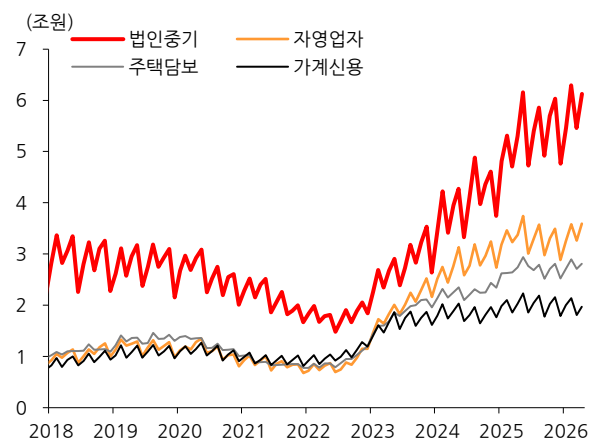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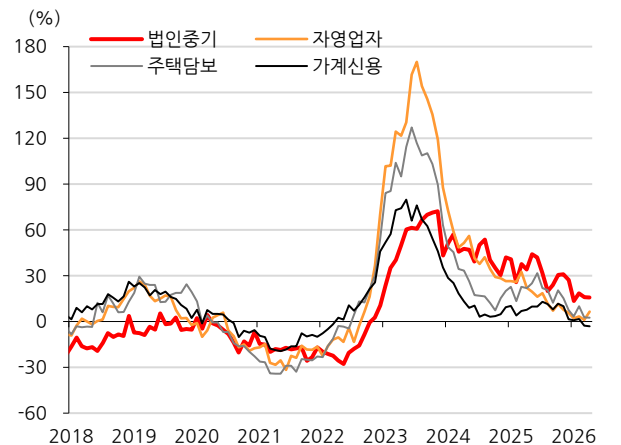
주: 당월 정리 규모/(전월 연체잔액+당월 신규연체)의 비율로 산출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6월 18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년 3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7%	9.3%	0.0%	100.0%